

한국의 중국연구 어제와 오늘

-중국연구자의 고민과 반성-

임 규 섭
북경대학교

< 목 차 >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지역연구 및 중국연구의 역사 | 참고문헌 |
| III. 중국연구 현황 | Abstract |
| IV. 중국연구의 문제점 및 논쟁 | |

Key words(중심용어): 중국학(Sinology), 중국연구(China Studies), 지역연구(area studies), 정체성(identity),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

국 문 요 약

과거 한국의 중국연구는 단절의 역사를 거치기는 했지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주요 역사적 단계에서 연구자의 중국에 대한 인식과 그 들의 기능도 다른 형태를 가지고 발전해왔다. 하지만 한국에서 지역연구 의미의 중국연구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도 한국적 시각의 중국연구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최근까지 한국의 중국연구가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향상을 못이룬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

중국연구는 외국인이 타자의 시각으로 중국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지역연구인 중국연구는 ‘자신의 위치’에 우선성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 그럼으로 한국적 중국연구란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어떻게 연구하는 것인가? 또한 어떤 역할을 갖고 어떤 기능을 하여야 하는가? 라고 연구자들은 항상 자문하며 신분 및 정체성 혼란에 빠진다. 본 논문은 중국연구자의 입장과 중국연구의 역사와 제도적 측면 등 구조적 배경을 살펴보고, 중국연구가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논쟁을 중심으로, 향후 한국적 중국연구가 나아가야 할 부분을 고민한다.

I. 서론

한학(漢學) 혹은 중국학(中國學) 및 중국연구(中國研究)에 대한 정의는 국제학계에서 줄곧 논쟁이 되어왔다. 가장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개념은 “외국인이 중국을 연구하는 학

문”으로서 ‘타자’의 시각으로 중국을 연구하는 학문이다.¹⁾ 중국인이 중국을 연구하는 학문은 국학(國學)이라 한다. 즉 서구세계가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연구를 탄생시켰으며, 중국인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국학을 만들었다.

그러면 외국인이 중국을 연구하는 중국연구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중국연구란 중국을 어떻게 연구하는 것인가? 중국연구는 중국을 전파하는 학문인가? 만약 그렇다면, 중국을 전파하는 역사 과정에서 중국연구는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였으며 또 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상 중국연구가 학문으로 변하면서 ‘신분’(status) 혹은 ‘정체성’(identity)에 대한 곤혹(困惑)에 빠지기 시작했다. 중국연구자의 신분으로 중국연구를 ‘중국을 전파하는 학문’으로 삼아서, 일반인들에게 중국을 광범위하게 소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인과 ‘학술적 상아탑’을 구축하면서 자신의 학문적 목적을 충족하면 되는 것인지? 라는 자문을 던져본다.

서구세계에서 중국연구는 “중국, 중국문화, 중국특성(chineseness)에 관한 서구의 학문”으로서 서구문명과 중국문명간의 대화를 통해서 서구문화가 자신을 이해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다.²⁾ 다시 말해, 서구의 중국연구는 서구세계가 “자신의 신분이나 정체성을 확정(確定)해가는 과정”에서 이해되었다. 그러므로 서구의 중국연구는 ‘중국이미지’의 변화 및 서구 내부의 변화에 따라서 변천해왔다.

중국연구는 전지구적 범위 내에서 ‘중국이미지’를 생산하며, 세계인의 중국에 대한 문화적 관념에서부터 국가정책에 이르기 까지 직·간접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학문이다. 그러나 각 중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중국이미지는 개개인에 따라 모두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의 정확한 중국이미지’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 중국을 지나치게 아름답게 혹은 지나치게 추하게 묘사한다면, 중국연구자는 ‘진실된 중국’을 객관적이고 학술적으로 환원할 의무가 있다.

최근 해외의 중국연구는 ‘정치 요소’가 점점 약화되면서 갈수록 ‘경제 이익’의 주도하에서 중국문제를 연구해가는 추세이다.³⁾ 또한 사람들의 중국이미지에 대한 인식(認識)도 ‘상상체’(想像體)에서 ‘구체적 실체’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학생을 예로 들면, 과거 학생들은 중국의 문·사·철에 대한 학술적 흥미를 갖고서 중국어를 배웠으나, 현재는 공과 이과 상과에서의 의과에 이르기 까지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이 취업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 ⁴⁾ 즉 ‘직업적인’ 동기가 ‘학술적인’ 동기보다 더 구체적이고 힘을 발휘함으로써, 학생들의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추상적’에서 ‘현실적’ 인지(認知)로 전환되었다.

한국에서 중국을 연구하는 중국연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오랜 역사는 중국연구의 기능이 변천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또한 주요 역사적 단계에서 중국연구자의 기능도 다른 형태를 가지고 발전해 왔다. 한국의 ‘중국인식’과 중국연구는 주로 조선시대 이래 ‘사대주의적’ 한학의 영향을 받아, 중국에 대해 공자 맹자 주자 자금성 천안문 만리장성 황하 등 중국 역사와 문화의 찬란함과 거대함에 대한 선망을 갖고 있어 현실과의 괴리가 상당

1) 한학과 중국학은 문학 사학 철학인 인문학 영역에서 많이 사용되며, 중국연구는 사회과학 분야의 현대 중국에 관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다. 중국에 대한 연구의 영어표현법은 Sinology와 China Studies/Chinese Studies 두 가지가 사용되며, 한학과 중국학은 Sinology로 표현하고, 중국연구는 China Studies/Chinese Studies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때로는 이 두 표현법이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약간의 차이를 보이며 분류하여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에 관한 연구’를 중국연구로 개념 통일하여 사용한다.

2) 杨熙生, “汉学: 回溯与前瞻”, 『瞭望』, 13기, 2007년 3월 26일, p.35.

3) 何培忠, 『当代国外中国学研究』, 베이징: 商务印书馆, 2006년, p. 31.

4) 周质平, “对中国的认知正变得更务实”, 『新京报』, 2007년 3월 27일, C10.

히 심했었다.⁵⁾ 즉 과거 문·사·철이 중심이 된 ‘한학 연구’는 “한학은 바로 선진문화(先進文化)이다”라는 전제하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재 인문과학,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중국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중국문화는 동양문화이며 동아시아문화의 원형(原型) 내지 정체(正體)다”라는 인식상의 변화가 나타났다.⁶⁾

과거 한국은 독자적인 중국연구의 전통과 방법론이 있었지만,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계승이나 발전 없이 단절되었고, 해방 이후 새로운 교육제도를 시행하면서 중국연구를 비롯한 사회과학 대부분이 미국 등 서구중심으로 수행해왔다. 즉 한국의 중국연구는 미국, 유럽, 일본 및 대만 등의 연구결과를 모방하여 발전해 왔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롭게 변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가는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한국인의 입장과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분명히 연구의 핵심은 연구자이다. 그런 연구자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역할을 위해 연구를 진행하는 가는 연구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⁷⁾ 가치중립을 중시하는 사회과학이라 할지라도 지역연구인 중국연구는 ‘자신의 위치’를 우선에 두고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에 필자⁸⁾는 중국연구자 입장에서 중국연구의 역사 및 제도 등 구조적 배경을 돌아보고, 향후 중국연구가 지향해야 할 부분을 고민하려 한다.

II. 지역연구 및 중국연구의 역사

1. 지역연구의 역사

한국의 지역연구는 뚜렷한 역사적 시기구분을 할 정도로 학문적 축적을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을 살펴보면 1960년대에는 소수 관심 있는 학자들 중심으로 지역연구가 수행되었고, 1970년대에는 공산권에 대해서 지역연구가 행해졌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소들도 개설되었다. 1980년대 말까지 역사학과, 정치학과 전공자들에 의해서 지역연구가 뿌리내리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은 ‘비전공자’들이 주도한 객관적 연구로서 시작되었다.

1990년을 전후하여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탈냉전, 해외시장의 다변화 현상으로 지역연구의 주요 대상지역이 공산권으로부터 ‘지구촌’ 전반적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한국의 지역연구는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한다.⁹⁾ 즉 1990년대 들어서 세계 각 지역에 대한 학문 전 분야에 걸쳐 연구가 활성화 되었다. 그 이유는 해외 지역에 대한 독자적인 정보와 지식체계를 요구하는 ‘국가·사회적 필요성’¹⁰⁾, 학문적 차원에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의 경향’¹¹⁾의

5) 박병석, “미국의 중국연구 추세와 접근법: 한국의 문제점을 아울러 논함”, 『東北亞發展研究』, 인천: 인천대학교 동북아발전연구원, 1999년, p. 192.

6) 전략회, “한국에서 중국학 연구의 어제와 과제”, <http://cafe.naver.com/chinainstitute.cafe>.

7) 이는 중국연구의 정체성에 관련된 것으로서 “중국연구의 무엇을 어떻게 연구해야 할 것이며, 그 출발점이 한국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참고: 김영진, “중국정치 연구의 정체성에 관한 시론”, 『국제지역연구』, 2003년 1월, p. 56.

8) 필자는 항상 중국연구에 있어서 자신의 신분을 묻곤 한다. “나는 중국연구자인가? 아니면 정치학자인가?” 정치학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는 현 중국연구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연구=정치학자라는 등식을 만들고 있다. 그 이유는 정치학 중심의 ‘정책연구’를 핵심으로 중국연구가 진행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신분 및 정체성 혼란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필자는 중국정치를 다루고는 있지만, 중국을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중국연구자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다.

9) 이병화, 『지역연구, 배낭 메고』, 부산: 세종출판사, 2003년, p. 28-30.

요구,¹²⁾ 한국의 국제적 위상의 제고 및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취업위기에 대한 전문주의(專門主義) 확산의 결과이다. 아울러 교육부의 지역연구지원 정책도 지역연구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¹³⁾

지역연구의 경향을 보면 대상국가가 강대국일수록 정책연구, 약소국일 경우에는 학술연구적 성격을 띤 연구결과물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특정 국가의 지역연구 내에서도 국내정치 분야는 학술연구의 성격이 강하고, 대외관계 분야는 정책연구의 성격이 대부분이었다. 연구기관의 경향으로는 대학은 학술연구에 비중을 두고, 연구소는 정책연구에 비중을 두었다. 시기별로도 차이가 나서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는 주로 정책연구가 중심이었고, 지역연구 단계인 1990년대 이후에는 학술연구가 보다 증대되는 추세이다.¹⁴⁾ 이는 1990년대를 전후하여 한국의 지역연구가 ‘국가주도’에서 ‘사회주도’의 연구형태로 점진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중국연구의 역사

한국의 중국연구는 국제정세와 국가 정책, 한·중관계, 중국사회 내부의 변화, 사회적 필요성, 학문내적 변화 등의 요인¹⁵⁾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아왔다. 과거 한국에서 중국연구는 ‘공산권 연구’의 일부분으로 진행되었으며 엄격한 의미의 ‘지역연구’로서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는다.¹⁶⁾ 실질적으로 중국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기는 1990년대부터이다. 중국연구의 역사적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4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¹⁷⁾

첫 번째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이다. 이 시기 한국의 중국연구는 큰 발전을 보지 못했다.¹⁸⁾ 전통적인 중국연구는 ‘한학’이라는 명칭으로 동양사상, 동양사 및 중어중문학 등 분야에서 전통적인 시각 연구방법 및 수준으로 진행해왔고, 냉전의 영향을 받은 사회과학계는 정치학을 중심으로 ‘베이평학’(北平學, pekinology) 수준에서 중국을 연구

10) 국가는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사회는 시장개척적 차원에서 지역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11) 현실 체제로서의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지역연구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2) 전성홍, “한국의 지역연구 과제: 필요성, 정체성, 방향성 인식의 혼란 극복을 위하여”, 『국가전략』, 2002년 제 8권 2호, p. 33-36.

13) 당시 한국의 지역연구는 ‘국가 지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맹아적 단계로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행했던 ‘국가주의’에 기초한 지역연구를 형성했다. 참고: 이병화, 『지역연구, 배당 메고』, p. 26-27.

14) 전성홍, “한국의 지역연구 과제: 필요성, 정체성, 방향성 인식의 혼란 극복을 위하여”, p. 45.

15) 전성홍, “한국의 중국연구: 현황과 과제”, 이상섭·권태환 편,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년, p. 6, 9.

16) 한국의 중국연구는 약 3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즉 1970년대 중·후반 한국에서 지역연구적 중국연구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한 시기를 기점으로 보기도 한다. 참고: 전성홍, “한국의 중국 연구 발전 전망과 『중소연구』의 역할”, 『中蘇研究』, 통권100호, 2004년2월, p. 230; 김도희, “한국의 중국연구: 시각과 쟁점”, 『東亞研究』, 2006년 2월, p. 57.

17) 한국에서 중국에 관한 연구는 ‘삼국시대’(三國時代)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끊임없이 발전 유지되어 왔다. 그러다가 1870년대 개항에 따른 서세동점(西勢東漸)과 당시 한국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질서는 중국에 대한 전통적 관심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1910년 한일합병(合併)으로 한국의 중국에 관한 이해와 연구는 침체기를 걷게 된다. 사실상 일본에 의해 왜곡된 한국의 중국관(中國觀)은 오늘날에도 중국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문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해방 이후 ‘중국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시기 구분하였다.

18) 1950년대, 60년대 한국의 중국연구는 주로 중국의 역사, 철학, 문학 등 일부 인문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국제적으로 미국과 소련의 대립 및 냉전의 분위기, 국내적으로 한국전쟁과 남북분단의 상황으로 인해 공산권(共產圈)의 국가연구는 정부차원에서 제한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연구와 관련된 소장 자료의 절대부족과 이용상의 제한, 연구인원의 절대부족도 큰 요인이 되었다. 참고: 문홍호, “한국에서의 중국연구동향: 『中蘇研究』에 발표된 중국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中蘇研究』, 통권50호, 1991년 여름, p. 275.

하여 왔다.¹⁹⁾

두 번째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단계로서 ‘공산권 연구 시기’이다. 1972년 닉슨대통령의 중국방문으로 인한 미·중 간 관계개선, 7·4공동선언과 6·23선언으로 인한 남·북한 화해무드 조성으로 인해 한국은 중국에 관심을 가지면서,²⁰⁾ 지역연구라기 보다는 공산권연구 즉 사회주의권 국가연구의 일환으로 진행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말까지 이어졌다.²¹⁾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을 지역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적성국가’(敵性國家)라는 특수한 정치적 위상을 지니는 집단으로 규정하여, 개별 국가의 특성보다는 전체 국가 군(群)으로서 공산체제의 성격을 규명하려 했다.

사회과학분야 중심의 현대중국에 대한 연구가 비로서 시작된 시기이며, 중국관련 연구소와 전문저널, 그리고 대학 내 중국관련 과목이 개설된 것도 이 무렵이다. 당시 한국 내의 중국 연구는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성격을 지녔으며, 중국의 이데올로기와 당·정체제에 대한 피상적인 연구에 국한되었다. 연구의 주된 목표가 “자본주의 민주체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중공정권(中共政權)의 실제 파악”이어서, ‘정치학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²²⁾

셋째는 1980년 말 이후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면서 중국연구는 비약적 발전을 이루기 시작한다. 이 시기는 연구자들의 학문적 배경도 전 보다 다양화 됐으며, 연구 목적과 성격도 ‘지역연구적 경향’을 띠게 되었다.²³⁾ 사실상 한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학제간의 연구로서 지역연구가 인식되기 시작하여, 1990년을 전후로 해서 지역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중국연구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발전하기 시작했다.²⁴⁾ 또한 중국의 지속적 개혁개방 정책, 중국의 괄목할 경제성장과 부상, 한·중 수교와 그에 따른 다각적 한·중 교류의 확대와 심화로 한국사회에서의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한국 내에서의 학문적 자유 확대 및 1990년대 중반 세계화 추세 등도 지역연구적 중국연구 발전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²⁵⁾

이 시기부터 중국의 ‘1차 자료’ 취득이 용이해졌고 중국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의 기회도 증대되었으며, 대만(臺灣)유학 출신자들이 기업·학계·민간단체 등에서 연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서구의 연구결과를 통한 간접적인 중국연구가 아니라, 1차 자료의 분석을 통한 직접적인 중국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과거의 중국연구는 정치분야에 편중되었지만, 이 시기는 중국의 경제개혁과 한·중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뿐 아니라, 중국의 사회문화 및 인문과학분야의 중국연구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²⁶⁾

19) 박병석, “미국의 중국연구 추세와 접근법: 한국의 문제점을 아울러 논함”, p. 190-191.

20) 전성홍, “한국의 중국 연구 발전 전망과 『중소연구』의 역할”, p. 228.

21) 이 시기 한국의 중국연구는 서구연구의 모방과 이념적 속박 속에서 ‘정책연구’라는 구조적 한계를 탈피하지 못했다. 참고: 김도희, “한국의 중국연구: 시각과 쟁점”, p. 56.

22) 전성홍, “한국의 중국연구: 현황과 과제”, p. 6-8.

23)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양 국간에는 급속히 교류가 촉진되고, 1992년 한·중수교 및 냉전에서 탈냉전으로의 국제환경 변화로 인해, 한국과 중국은 ‘적대적 관계’에서 ‘경쟁적 동반자 관계’로 변화했으며, 이로 인해 과거 공산권연구라는 국제정치연구의 성격을 지녔던 중국연구는 지역연구로 발전 활성화된다. 참고: 전성홍, “한국의 중국연구: 현황과 과제”, p. 10; 전성홍, “한국의 중국 연구 발전 전망과 『중소연구』의 역할”, p. 229.

24) 이태환, “중국 외교안보 분야에 관한 연구 현황과 과제”, 백권호 이문형 이태환 전성홍, 『중국정치 경제에 관한 국내 연구의 현황과 과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년, p. 71-73.

25) 1990년 대 중반 한국정부의 세계화 정책 영향으로 지역관련 연구기관과 학술단체가 늘어났으며, 중국관련 학과와 지역전문대학원이 신설됨으로써 중국연구의 기반이 구축되었다. 참고: 김도희, “한국의 중국연구: 시각과 쟁점”, p. 56-57.

마지막 단계는 1990년대 말 이후부터 현재까지이다. 특히 1990년대 후반은 ‘중국연구의 전환점’이자 ‘질적 도약’의 시기로서,²⁷⁾ 전 영역에서 중국과의 교류가 활성화되어 중국 현지방문 및 중국인과의 접촉 경험이 많은 ‘일반인’들이 중국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현저히 증대되기도 했다. 또한 중국은 단순한 학술적 연구대상, 국가전략적 인식과 경제적 관심의 수준을 넘어 한국인 ‘삶의 일부분’이 되어 생활 깊숙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따라서 중국연구자들은 연구방법 및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을 과거에 비해 한층 더 요구 받게 되었다.²⁸⁾

[표] 중국연구의 시기구분, 연구형태 및 특징

시 기	기 간	연구형태	특 징
한학과 베이핑학	2차세계대전 후 ~ 1970년대 초반	국가 주도	중국연구 거의 터부시된 기간 불모지 시기
지역학 중국학	1970년대 중반 ~1980년대 중반	정치요인 영향 큼 정책연구 중심	공산권 연구 적성국가로서 특수한 정치위상 연구가 활성화 되기 시작
지역연구 중국연구	1980년대 말 ~1990년대 중반	사회 주도로의 전환 경제요인 영향 큼 학술연구 중심	비약적 발전 중국관련 연구물의 ‘양적’ 증가 학제간 연구의 중국연구
중국연구의 전환점	1990년대 말 ~ 현재		‘질적’ 도약의 시기 일반인들의 중국지식 및 이해 증가

Ⅲ. 중국연구 현황

1. 연구자 현황

(1) 중국연구자의 세대 구분

중국연구자의 세대구분은 연구의 흐름과 동향을 파악하는 데 용이할 것이다. 실제로 연구기간에 따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본다. 그러나 세대구분의 기준은 무엇이며,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몇몇 학자들은 자신의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중국연구 세대를 구분하고 있으나, 세대를 구분하기에는 아직 정립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26) 전성홍, “한국의 중국연구: 현황과 과제”, p. 8-9.

27) 전성홍·이민자, “한국과 중국정치 연구”, 정재호 편, 『중국정치연구론: 영역, 쟁점, 방법 및 교류』, 서울: 나남, 2000년, p. 290.

28) 전성홍, “한국의 중국 연구 발전 전망과 『중소연구』의 역할”, p. 229-230.

중국연구자를 크게 4세대로 나누어 보았다. 1세대는 1970년대 중반 사회과학에서 중국연구가 처음 시도되었던 시기에 연구를 시작한 세대이고, 1980년대 중반부터 연구를 시작한 주로 대만학위 출신들을 2세대로 보았으며, 1990년대 초반부터 영미권과 국내에서 학위를 받고 연구를 시작한 연구자들 및 1990년대 중반부터 귀국한 중국대륙 학위자들 중 일부를 포함하여 3세대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한 다양한 학문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을 4세대로 분류한다.²⁹⁾

특히 중국연구 영역 중 가장 발달한 중국정치 연구자의 세대를 구분하면서, 1세대와 3세대는 있어도 2세대가 거의 진공상태라고 한국학계의 특수상황을 지적한 학자도 있다. 구체적으로 세대를 구분하면, 1세대는 1970년대에 주로 귀국하여 중국정치연구에 종사한 학자를 의미하며, 3세대는 1980년대 초반에 중국정치에 입문하여 1990년대 초반 및 중반에 박사학위를 받아 중국연구에 종사한 학자들을 지칭한다. 그 중간 단계를 제 2세대로 보고 이에 속한 학자가 거의 부재하다고 평가한다.³⁰⁾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학위를 취득하여 중국정치에 종사한 학자들을 제 4세대로 볼 수 있겠다.

(2) 중국연구자 출신국별 현황과 특징

한국의 중국연구자는 출신국가 및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호 보완적일 수 있지만 실은 상당히 이질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³¹⁾ 크게 미국유학, 대만유학, 중국대륙유학, 일본유학, 유럽유학 및 국내학위 출신으로 구분되며, 그 중 일본 및 유럽 유학 출신이 상대적으로 적다.

한국의 중국정치학계의 경우 1980년대까지는 ‘미국유학과’와 ‘대만유학과’ 양대 세력이 주류를 이루었다. 대만유학과는 미국유학과와 중국어 능력이나 2차 자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 대해서 비판하였고, 반대로 미국유학과는 방법론적 논리의 결여와 기술(記述) 의존성이 높은 대만유학과를 비판하였다. 사실상 양자간에는 학문적 연계나 협력이 거의 없었다.³²⁾

최근까지 한국의 중국정치 연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최종학위 취득지역의 분포는 크게 변화되었다. 특히 중국대륙이 미국이나 대만을 대체하는 해외유학의 대안지역으로 부상하면서, 중국대륙 유학출신이 급증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 유학출신이 감소하고 있다.³³⁾ 한국의 중국연구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미국, 대만, 대륙 유학출신들의 특성을 간략히 살펴본다.

1. 미국 유학과

한국의 중국정치 연구자는 국외학위자의 비중이 크게 압도하고 있는데, 그 중 미국과 유럽의 학위자들이 학계의 큰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미국출신 중국연구 1세대는 1970년대 중반 귀국하여 미국적인 중국학을 소개하고 한국의 중국연구 기초를 닦는데 헌신했다. 1980년대 초에 귀국한 2세대는 중국연구의 깊이와 넓이를 마련했고, 1990년대 초에 귀국

29) 김도희, “한국의 중국연구: 시각과 쟁점”, p. 61.

30) 정재호, “중국정치 연구의 영역, 쟁점 방법 및 교류에 관하여”, 정재호 편, 『중국정치연구론: 영역, 쟁점, 방법 및 교류』, 서울: 나남, 2000년, p. 3-4, 18-19.

31) 학위 배출지역에 따라 학위논문의 주제도 일정한 패턴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사회적 관심이나 문제의식, 둘째는 연구자의 전공 배경, 셋째는 논문을 위한 자료의 접근 등의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참고: 김영진, “중국정치 연구의 정체성에 관한 시론”, p. 68-71.

32) 정재호, “중국정치 연구의 영역, 쟁점 방법 및 교류에 관하여”, p. 18.

33) 전성홍·이민자, “한국과 중국정치 연구”, p. 271-273.

한 3세대는 1세대의 교육을 받고 유학 갔다 온 그룹으로서, 양적인 면에서 한국의 중국연구 토대를 마련한 세대로 보고 있다.

미국유학 출신들의 연구방법은 서구이론을 통한 중국연구가 주된 흐름이었고, 미국연구의 장점과 문제점을 거의 그대로 계승 유지하였다.³⁴⁾ 또한 사회과학적 이론에 대한 훈련, 높은 수준에서 쓰인 영어자료의 이용 및 국제적 수준의 학술적 교류를 통해서 현지의 중국연구에 깊이 연관되어있다는 장점이 있다.³⁵⁾ 그러나 미국출신들은 방법론이나 이론 수준이 높을 수는 있지만 현장경험이 낮기 때문에 이론과 현실간의 괴리가 존재하는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

ㄴ. 대만 유학파

대만 유학 출신은 1980년대 말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부터는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점점 연속성을 상실하는 하는 것 같다. 대만 출신은 미국출신에 비하여 직접자료를 사용하여 현실에의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체계성과 이론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 또한 한때는 대만의 반공(反共)이데올로기가 중국연구에 영향을 미치면서 학문적 객관성에 문제점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부터 대만의 중국연구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면서,³⁶⁾ 정책적 연구에 비해 학술적이고 이론적 분석 연구가 증가하여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반공이데올로기의 영향은 거의 사라졌다고 본다.

ㄷ. 중국대륙유학

중국대륙 유학출신은 1996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귀국하기 시작하여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까지는 학계의 주류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대륙출신들은 현장 접근성에서 우월하지만 사회주의 학문과 자본주의 학문 체계의 상이성으로 인해 연구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며, 중국 사회환경의 폐쇄성으로 사실과 정보에의 접근성은 오히려 대만보다 떨어진다. 또한 중국정부의 ‘관방 문건 위주의 연구’³⁷⁾는 현실과의 괴리로 나타나기도 한다. 분석보다는 서술이 강한 점도 큰 특징이다.³⁸⁾

중국정치 연구자의 최종학위 취득지역의 분포가 2000년을 전후해서 크게 변화되고 있는데, 그 중 중국대륙 유학출신 연구자가 급증하고 상대적으로 기타 지역 출신 연구자들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중국이 미국이나 대만을 대체하는 해외유학의 대안지역으로 부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유용성이 있겠지만, 특히 1990년대 지역연구 활성화 분위기 속에 신설 증설된 다수의 지역연구 관련 학과들이 ‘현지출신 전문가’를 선호하는 분위기는 중

34) 박병석, “미국의 중국연구 추세와 접근법: 한국의 문제점을 아울러 논함”, p. 191.

35) 김영진, “중국정치 연구의 정체성에 관한 시론”, p.70.

36) 대만의 중국연구는 양안관계(兩岸關係)의 현실적 요인에 근거하여 독특한 연구전통을 발전시켜 왔다. 1949년부터 시작한 중국연구는 현재까지 모두 3단계 발전과정을 거쳐왔다: 첫째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기까지의 ‘중공연구’(中共研究)시기; 둘째는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까지의 ‘중국대륙연구’(中國大陸研究)시기; 셋째는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의 ‘당대중국연구’(當代中國研究)시기로 구분된다. 특히 현 단계인 당대중국연구 시기는 과거의 ‘정부주도’에서 ‘사회주도’로 연구형태가 전환되면서, 정책적 연구 보다는 학술적 흥미와 목적에 기초한 연구들이 주도하게 됨으로써, 중국연구의 질적 향상을 크게 이루었다. 참고: 張弘遠 李宗義, “中國研究在台灣: 研究體制的發展與變遷”; 石之瑜 編, 『從臨摹到反思』, 타이베이: 翰蘆圖書출판사, 2005년, p. 251-262.

37) 중국대륙 출신 학위자들은 중국정부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김영진, “중국정치 연구의 정체성에 관한 시론”, p. 70.

38) 박병석, “미국의 중국연구 추세와 접근법: 한국의 문제점을 아울러 논함”, p. 192.

국유학의 사회적 가치를 크게 제고 시켰다.³⁹⁾

2. 제도적 측면

(1) 연구환경

한국의 중국연구 관련 연구소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 대학 부설연구소들이 ‘공산권 연구’를 위해 설립 운영되어오다, ‘공산권연구협회회의’ 기능 정지와 예산 중단으로 인해 현재는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다 1980년대 말 이후, 한·중 교류의 봄을 타고 주요 ‘국책연구소’들이 중국연구를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대학연구소에서 국책연구소로의 ‘성격변화’가 나타났으며, 과거의 공산권 국가의 제도와 이념, 외교정책 중심에서 투자, 한중간 경제협력 등 경제중심으로의 ‘연구방향’도 크게 변화되었다.⁴⁰⁾

1990년대 한국에서는 해외지역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비가 늘어났는데, 정부의 지역연구 지원⁴¹⁾ 및 기업이나 민간연구소에서 지원하는 연구비가 크게 증가했다.⁴²⁾ 그러나 1997년부터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관리하던 해외지역연구 사업이 1999년에 없어진 이후로 중국연구자는 연구비 획득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다가 2002년부터 2005년에는 지역연구에 대규모 연구비가 책정되면서 지역연구자에게 많은 기회가 제공되었으며, 그 중 중국지역 관련 과제(課題)도 다수 선정되어 중국연구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 외, 개별 기관이나 단체의 연구프로젝트 재정지원, 공공기관의 연구기관 및 대학부설의 소규모 연구기관의 현황은,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중국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인력 등은 증가되고 있지만 아직은 낙관적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학술단체는 다양한 연구회들이 소규모 모임을 통해 비교적 활발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⁴³⁾

(2) 교육환경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연구 봄’이 조성된 1980년대 말 이후 중국관련 학과가 많이 신설되었다. 특히 1992년 한·중 수교에 따른 ‘중국 봄’과 1990년대 중반 무렵 정부차원의 ‘세계화 정책’ 영향하에서 지역연구와 관련된 전문대학원 과정이 다수의 대학에서 신설되었으며,⁴⁴⁾ 학부과정에서는 ‘중국학’이란 명칭으로 학과가 신설되었다.⁴⁵⁾ 학부의 설립유형을 보면, 첫째는 중어중문학과나 중국학과가 없던 대학에서는 중국학과를 새로이 만들고, 둘째는 기존의 중어중문학과에서 중국학과로 명칭을 전환했으며, 셋째는 중어중문학과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서 별도로 중국학과를 설립하는 경우 등 한국의 중국관련 학과는 일대 전환기를 맞는다.

39) 중국대륙유학 출신의 중국정치 연구자가 꼭 장점으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 현 한국 학계의 분위기상, 그 들이 직면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 첫째는 사회주의권 국가의 수련과정을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국내의 학계분위기; 둘째는 낙후된 한국 내 중국정치 연구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이다. 참고: 전성홍·이민자, “한국과 중국정치 연구”, p. 271-273, 276.

40) 같은 책, p. 282-283.

41) 교육부는 1994년 해외지역 연구만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기도 했다.

42) 전성홍·이민자, “한국과 중국정치 연구”, p. 279.

43) 김도희, “한국의 중국연구: 시각과 쟁점”, p. 65-67.

44) 학부 교육과정은 과거의 ‘어문학’(語文學) 중심과 비교해서 발전된 상황이다. 학부는 초기의 지방 중심에서 수도권으로, 대학원 과정은 초기의 서울 중심에서 지방소재 대학으로 각각 확산되어가는 추세이다. 참고: 전성홍·이민자, “한국과 중국정치 연구”, p. 262.

45) 대학에서 중국학과란 새로운 명칭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는, 기존의 중어중문학과가 주어진 역할과 사회적 책임에 한계가 있으며, 수요자의 관심이나 이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사실상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전에는 대학의 중어중문학과 교과과정은 전인적 인성교육이란 패러다임 아래 상대적으로 ‘문학’이 중시되었으며, 냉전체제의 영향과 중국문학이 갖는 전통성 때문에 ‘고전문학’⁴⁶⁾ 중심으로 교과과정이 편제되었다. 또한 대만유학 출신의 학자들이 대학에 대거 교편을 잡으면서 ‘고전문학을 중시하는 대만 학풍’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대학의 패러다임이 ‘실용성과 실수요자 중심’으로 과거의 전인성에서 전문성과 대중성으로 전환되었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중국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백화(白話)로 쓴 ‘현대문학’으로 관심이 옮겨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문학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사상 및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폭 넓은 ‘당대(當代)의 중국’을 이해하려는 추세이다.⁴⁷⁾ 그러나 한국의 지역연구가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설립된 중국관련 학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체계적인 ‘교과과정’이 준비되어있지 않다. 즉 지역연구는 학제간 연구방법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것을 교육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나타남으로써, 교과과정은 다양한 과목들의 나열로 서로가 유기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대학원의 경우는 1995년 국제통상과 국제관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발표되고, 1997년부터 ‘국제대학원’(GSIS: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이 전국 9개 대학에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으로 설립되었다.⁴⁸⁾ 국제전문가로서의 정치감각, 경제지식, 실무적인 활용 등을 강조하고, 단일학문 위주의 교육보다는 학제간 교육을 바탕으로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교과과정에 중점을 두었다. 그 유형을 보면, 첫째는 지역학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학, 미국학, 일본학, 중국학, 러시아학 등으로 나누어 학생이 하나의 지역전공을 선택하고, 둘째는 지역학의 개념보다는 국제통상, 국제금융, 국제관계 등에서 하나의 전공분야를 선택하여 그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강조하며, 셋째는 위의 두 경우를 혼합하여 한국학전공, 국제통상전공, 국제협력전공, 지역학전공, 국제경영전공 등의 전공과정을 두어 운영한다.⁴⁹⁾

3. 연구 성과물

1990년대부터 한국에서 지역연구로서의 중국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이는 ‘지역학’에서 ‘지역연구’ 단계로 전환된 시기이다. 특히 1980년대까지는 중국연구는 ‘비전공자’에 의해 개괄적으로 연구되었으나 1990년대 들어와서는 ‘진정한 지역연구자’⁵⁰⁾에 의한 중국연구

46) 고전문학이란 주로 청말(清末)까지의 문학을 의미한다.

47) 정우광, “韓國에서 中國學의 現況과 그 方向”, 『中國語文論叢』, 제21집, 2001년, p. 518.

48) 학부에서 지역학과를 설립하는데 이어 대학원과정에서 국제대학원 설립은 지역연구에서 더 나아가 ‘지역학’이라는 새로운 학문분과로 발전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러나 지역연구를 기존 학문체계와는 구분되는 특수한 영역으로 ‘격상’시킴으로써 학문적 고립을 자초했다. 즉 특수화 교육은 분과학문 분야의 중국연구와 차별화를 모색했고, 결국엔 중국연구와 분과학문과의 분리를 초래하여 오히려 지역연구 활성화에 역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국제대학원은 영어로 강의해야 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미국유학 출신자로 구성되어 ‘미국화’를 걸었으며, 중국학과는 중국어를 기본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주로 대만이나 중국대륙 유학 경험자로 구성되어 ‘중국화’를 지향하였다. 참고: 전성홍·이민자, “한국과 중국정치 연구”, p. 264-268.

49) 정우광, “韓國에서 中國學의 現況과 그 方向”, p. 526-530.

50) 진정한 지역연구자란 “특정 학문분과가 요구하는 이론적, 방법론적 분석능력과 전공지역 또는 국가를 이해하

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즉 1970, 1980년대의 연구결과물들은 비전공자들이 ‘2차 자료’에 의존하여 미국이나 일본 등의 기존 연구를 정리하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현지언어 구사능력이나 체류경험은 있지만 분과학문적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연구자들에 의한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현지조사와 방법론적 분석 능력을 결합하여 ‘1차 자료’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 중국연구가 증가하고 있다.⁵¹⁾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의 중국정치 연구도 방법론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생겨났고, 과거 ‘단순한 사실의 기술’보다는 ‘설명적 성격’을 띠는 연구성과물이 늘어났다. 연구주제들도 다양하고 미시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의 모임도 형성되었다.⁵²⁾ 분석수준도 중앙에서 지방으로 낮아지고, 다양하고 구체적인 행위주체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증가했다. 이에 1990년대 후반을 ‘중국연구의 전환점’이자 ‘질적 도약’의 시기라고 본다.⁵³⁾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중국연구에 관한 연구결과물의 ‘양적’ 변화상태를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단행본, 학술지 및 박사학위논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 단행본은 인문학과 사회과학 관련 서적이 각각 50%씩을 차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양적 팽창을 해왔다. 인문학은 ‘역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사회과학은 경제·상업 분야가 가장 많고 정치학은 그 다음으로 많았다. 둘째로 박사학위논문의 경우는 인문학의 비중이 사회과학보다 더 컸다. 인문학분야에서 ‘어문학’ 분야가 가장 많았고, 사회과학 분야는 1996년부터 경제·상업 분야가 정치분야를 앞서고 있다. 셋째 학술지의 경우는 사회과학이 인문학보다 훨씬 많았다. 인문학은 어문학이 가장 많았으며, 사회과학은 2000년까지는 정치학과 경제분야의 비중이 비슷하거나 정치 분야가 약간 많았지만 2001년부터는 경제·상업 분야가 두 배정도로 많아졌다.

그럼 “과연 한국에서의 중국연구는 ‘질적 발전’을 이루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사실상 질적 발전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단 그 경향을 살펴보면, 단행본 저서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교과서식이나 개괄적 설명위주의 연구저서에서 벗어나 세분화된 주제를 대상으로 심층적이고 치밀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⁵⁴⁾ 학술논문은 1990년대 초기와 중반까지는 대체적으로 거시적이고 광범위한 제목이 주종을 이루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제목이 매우 세분화되고 또한 부제(副題)를 달아 구체화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 또한 논문에서 사용된 각주의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며, 참고문헌은 영문 중문 국문 등 다양한 국가의 자료를 활용하면서 그 양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긍정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중국연구는 국제수준의 연구성과와 비교할 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 특히 대부분의 중국연구들은 이론적 명제나 방법론의 제시에 기반하지 않은 서술적(descriptive) 형식의 논술구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며, 연구

는 데 필요한 현지조사 연구능력을 겸비한 자”로 정의한다. 즉 지역연구자는 인문학 및 사회과학 학자로서의 전문적 소양, 현지언어 구사능력, 현지체류 및 조사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

51) 전성홍·이민자, “한국과 중국정치 연구”, p. 288-289.

52) 그 외, 연구대상인 중국이 개방을 확대해나갔고, 냉전 이후 한국에서는 사회주의권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급증하였으며, 한국과 중국의 수교로 인한 ‘현실적 수요’의 증가도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특히 중국에 대한 현지조사가 가능하여 연구자들이 1차 자료를 쉽게 취득하게 된 것도, 중국연구가 커다란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 정재호의 5명, “한국에서의 중국정치 연구의 재 고찰: 자료, 방법론 및 담론을 중심으로”, 『國際政治論叢』, 제45집, 2005년, p. 111-112.

53) 전성홍·이민자, “한국과 중국정치 연구”, p. 290.

54) 김도희, “한국의 중국연구: 시각과 쟁점”, p. 67-70.

논문에서 주장(argument)과 근거(evidence)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⁵⁵⁾ 또한 한국의 중국연구는 관심을 끌만한 논문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경향상의 특징을 발견하기 어렵고, 외국의 연구경향과도 크게 유리되어 있다.⁵⁶⁾ 이는 중국연구의 질적 발전에 큰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IV. 중국연구의 문제점 및 논쟁

한국의 중국연구는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연구는 유학생의 높은 비중에 따른 연속성의 부재와 학문적 종속성, 여러 국가 및 지역의 유학출신에 따른 응집력 부족과 이질성, 인적·재정적 한계 등이 나타나고 있다.⁵⁷⁾ 또한 해외연구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한 동시에 국내의 기존연구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지 못함으로써 학문적 단절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중국연구에 대한 방법론 및 이론화 수준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중국연구에 대한 진지하며 제대로 된 토론문화가 부재하고 정체성도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아,⁵⁸⁾ 중국연구는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향상을 이루지 못했다. 중국연구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이 많이 산재해있다. 그 중 몇 가지 논쟁을 중심으로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자 한다.

1. 한국적 시각의 중국연구

한국의 중국연구는 한학적 분위기와 냉전의 유산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서구의 희망적 예단(wishful thinking)을 그대로 차용하거나 대만 학계의 중국연구 경향을 반영함으로써 토착적이고 비판적인 중국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⁵⁹⁾ 유학은 분명히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으나, 한국의 중국연구에 있어서 정체성과 연구의 연속성 및 축적으로 하는 정체성의 확립을 어렵게 하였다.⁶⁰⁾ 특히 한국의 중국연구는 서구의 시각, 관점 및 이론의 영향을 받아 그 틀을 모방하고 답습하는 수준이었다. 미국 학문연구의 시각과 방법이 한국의 중국연구 학계를 지배하고 있으며, 미국의 입장과 관점을 통해서 중국을 이해하는 풍토가 일반화 되어있다.⁶¹⁾ 그 결과 서구 중심의 연구 패러다임을 한국의 중국연구에 응용함으로써, 서구에서 이미 자체적인 반성을 보였던 방법론을 가지고 분석하는 한계를 보여 주었다. 즉 서구의 오독(誤讀)과 잘못된 시각에서 기초한 분석까지 함께 도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⁶²⁾

한국적 시각의 중국연구 확립에 대해 학자들간에 엇갈린 견해를 보인다. 한편에서는 한국의 중국연구 학계가 서구의 선진적 이론 및 방법론 등도 아직은 제대로 모방(模倣)조차 하지

55) 정재호외 5명, “한국에서의 중국정치 연구의 재 고찰: 자료, 방법론 및 담론을 중심으로”, p. 119-121.

56) 전성홍·이민자, “한국과 중국정치 연구”, p. 270.

57) 김영진, “중국정치 연구의 정체성에 관한 시론”, p.73.

58) 김도희, “한국의 중국연구: 시각과 쟁점”, p. 74-76.

59) 이희옥, “한국에서 중국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역사비평』, 통권61호, 2002년 11월, p. 362.

60) 김영진, “중국정치 연구의 정체성에 관한 시론”, p.75.

61) 박병석, “미국의 중국연구 추세와 접근법: 한국의 문제점을 아울러 논함”, p. 202-203.

62) 서구 중심의 패러다임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지나친 일반화’는 중국에 대한 오류적 해석과 예측을 야기하게 되며, 이와 반대로 중국적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연구 경향 역시 학문적 폐쇄성을 극복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참고: 김인·전병곤, “중국 연구의 방법과 과제”,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역학연구회, 『지역학 연구의 과제와 방법』, 서울: 책갈피, 2000년, p. 102, 128-130.

못하고 있고 외부와의 경쟁도 극히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한국적 연구’를 제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국적 시각의 중국연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빨리 제대로 된 모방부터 해야 한다⁶³⁾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긍정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모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비켜가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다른 나라 중국연구의 의도, 방법론적 기초 및 그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무차별적으로 수용’하면, 기존의 지배적인 담론구조에 좌우되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지역연구 자체가 국가마다 고유한 이해관계로 인해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므로, 3국을 통한 중국이해는 그 유용성이 현저히 낮다. 즉 중국연구의 출발점은 한국이 갖는 의의와 미국, 일본 및 대만 등 다른 나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다⁶⁴⁾라고 지적한다.

중국연구도 하나의 학문으로서 가치관이 배제된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접근되어야 하지만, 한국의 중국연구는 미국 등 서구의 입장과 관점에 기인한 방법론과 이론에 바탕을 두고 발전해왔다. 향후 중국연구의 발전을 위해서 서구의 방법론 및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수용하는 작업이 선결과제가 되어야 하며, 아울러 일본이나 대만 등 비서구(非西歐) 국가 중 기존에 중국연구에 일정한 성과를 보인 국가들의 시각과 방법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이제는 제 3국의 시각을 빌어 중국을 보는 ‘의존적인’ 연구환경에서 벗어나야 하며, 우리의 시각과 입장에서 중국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한국적 중국연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2. 내재적 시각 연구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기반한 진보적인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기존 중국연구의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내재적 분석’⁶⁵⁾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분석방법은 향후 한국식 접근법을 창안하기 위한 기초로서 의의를 가지며,⁶⁶⁾ 지역연구를 다른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으로부터 구분하는 방법론의 핵심⁶⁷⁾이 되었다. 비록 한국의 정치·경제적 목적에 의해 타 지역국가를 연구하더라도, 지역연구자는 내부자적인 시각에서 연구대상이 된 국가를 해석학적 방법에 의해 재구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⁶⁸⁾

그러나 내재적 시각은 ‘중국 바로 알기’를 견지한 나머지 상대주의적 시각에 빠지기 쉬우며,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지나치게 표현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내재적 접근방법은 서구의 연구성과에 대한 ‘인식론적 비판’에 머무를 수 있으며,⁶⁹⁾ 또 한편으로 연구자는 중국인의

63) 정재호, “중국정치 연구의 영역, 쟁점 방법 및 교류에 관하여”, p. 17-18.

64) 김영진, “중국정치 연구의 정체성에 관한 시론”, p. 56-57.

65) 내재적 분석이란 사회주의 이념과 현실을 내재적으로, 즉 안으로부터 분석·비판하여 사회주의 사회가 자본주의와는 다른 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사회주의가 이룩한 성과를 이 사회가 이미 설정한 이념에 비추어 검토·비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고: 최성 편, 『현대사회주의 비교연구』, 서울: 학민사, 1990년, p. 30.

66) 김인·진병곤, “중국 연구의 방법과 과제”, p. 128.

67) 내재적 분석방법의 의의는 “지역연구는 현지조사를 통한 ‘1차 자료’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야 하고, 현지조사를 통하여 연구를 사회문화적 의미 구조 해석의 차원으로 확대시켜야 하며, 이것이 지역연구자에게 ‘현지 언어 습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다.

68) 조기숙, “한국에서의 지역연구: 정체성과 방법론”, 『세계지역연구논총』, 제 12집, 1998년, p. 22-23.

입장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중국을 이해해야 한다는 내재적 접근방법을 주장한 나머지, 중국사회의 문제점들마저 감추려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그 결과 한국 학계의 많은 중국 연구가 중국 정부의 문건을 정리하여 그들의 입장을 여과 없이 홍보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중국 당국이 국정(國情)을 이유로 서구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는 대내·외 정책에 부합하는 연구성과도 보였다.⁷⁰⁾ 현실적으로 한국 내에서는 지역연구의 내부자적 시각에 대한 합의가 아직까지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3. 학제간 연구 및 공동연구

한국에서 공동연구는 공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연구의 ‘단순조합’의 형태를 주로 띠고 있다. 즉 서로 다른 분과학문의 비교우위가 분석틀 내에서 상호 보완되어야 하는 ‘학제적 연구’보다는 ‘잡학적 연구’(multidisciplinary research)로 흐르고 있는 것⁷¹⁾이 오늘날 한국 지역연구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한 더 근본적 문제는 “과연 학제간 연구란 무엇인가? 그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자신의 기존 사고와 연구방법에 대한 성찰과 상호교류 속에서 이를 조정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많이 부족했던 사실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⁷²⁾ 결과적으로 학제간 연구방법을 중국관련 학과의 교과과정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학제간 연구 및 공동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한국 내 연구풍토의 구조적 모순⁷³⁾에 기인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한국의 중국연구는 공동의 연구과제는 있지만 공동의 연구과정은 없어서, 그 연구결과는 개별연구의 어색한 묶음으로 흐르고 있다. 현실적으로 연구자들의 다양한 전공분야는 학제적 조건을 형성하는 데 충분하지만, 연구의 과정이나 결과는 결코 학제적이지 못하다⁷⁴⁾고 지적한다.

4. 지역연구와 분과학문, 각 분과학문 간의 균형적 발전

과거 냉전시기에는 지역연구를 중시하는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교정치학을 연구한 결과로 한국의 지역연구는 ‘정치학’ 분야의 학자들이 주도해왔으나,⁷⁵⁾ 탈냉전과 한·중 수교로 인한 양국간의 경제교류 확대로 ‘경제학’ 중심의 사회적 필요에 따라 그 흐름이 변화됐다. 현재 중국연구는 정치학 및 경제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다른 분야의 중국연구는 상

69) 이희욱, “한국에서 중국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p. 363-364.

70) 예를 들면, 경제성장의 성과가 좋으면 불합리한 정치현상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중국의 입장으로, 중국의 민주, 인권, 정치참여, 보통선거, 질서, 언론자유, 종교자유 등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은 서구의 가치관이라는 이유로 중국과의 연결을 외면했다. 참고: 박병석, “미국의 중국연구 추세와 접근법: 한국의 문제점을 아울러 논함”, p. 198-199.

71) 정재호외 5명, “한국에서의 중국정치 연구의 재 고찰: 자료, 방법론 및 담론을 중심으로”, p. 114-115.

72) 김도희, “한국의 중국연구: 시각과 쟁점”, p. 81.

73) 예를 들면, 자유로운 비판과 진지한 토론 문화의 부재, 남의 글 안 읽고 인용 안 하기, 학문적 사대주의, 국내 연구결과에 대한 일방적 불신 및 국내 연구동향에 대한 무관심, 학회활동이 학자들 상호간의 인맥관리 중심의 사교모임으로 전락(轉落) 등이 있다.

74) 전성홍·이민자, “한국과 중국정치 연구”, p. 284-287.

75) 이병화, 『지역연구, 배낭 메고』, p. 31.

대적으로 발전이 미흡하여 학문의 불균형적 발전을 초래했다.⁷⁶⁾ 그 결과 지리학, 인류학, 사회학, 법학 등 타 분야 전문가들의 지역연구 참여가 부진하다.

이런 불균형적인 발전을 만회하기 위해 사회학적인 중국연구의 가능성을 시도하는 학자도 있다. “사회학적인 지역연구는 무엇인가”라는 정체성, 그에 대한 방법론 그리고 다른 사회과학 분과학문들과의 차이를 분석한 후, 사회학과 지역연구의 만남은 ‘하나의 연구방법’만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연구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다양한 연구문제와 그 내용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더 나아가 인류학적인 방법을 통한 방법론의 다양화도 함께 강조한다.⁷⁷⁾

사실상 지역연구는 분과학문과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상호 보완해야 하며, 정치학, 경제학 뿐만 아니라 사회학 국제관계학 등 다양한 분과학문 간에도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해야 한다. 중국연구도 해당 분과학문에 대한 이론적인 기여를 전제로 한다. 해당 학문에서 정립된 이론이나 가설이 중국의 현실세계에서 증명이 되어야 그 이론 및 가설의 타당성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진행되어온 중국연구는 어느 분과학문의 이론적 발전에도 기여할만한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중국연구자는 중국의 역사와 현실세계에서 이론을 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중국연구가 분과학문에 공헌함으로써 학문적 정체성을 얻는 최상의 방법이 될 것이다.

5.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의 적절한 조화

한국의 중국학계는 중국을 세계의 중심이라는 ‘보편성’에 입각해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인문학은 중시되고 있지만, 지역의 ‘특수성’을 다루는 사회과학적 중국연구는 큰 가치를 부여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에 놓여 있는 한국의 중국연구 학계는 ‘보편성에 집착하는 학문’과 ‘특수성을 추구하는 학문’이 서로 교착되어 있는 상태이다.⁷⁸⁾

한국의 중국연구는 어문학·역사·철학 등 인문과학 분야는 대만유학 출신을 중심으로 근대 이전 ‘과거의 중국’에 대한 문헌 중심적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치·경제·사회 등 사회과학 분야는 서구유학 출신을 중심으로 ‘현대 혹은 당대 중국’을 분석적 방법을 통해 주로 연구하고 있다.⁷⁹⁾ 한국의 중국연구는 양자간에 구분되어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인문학 분야는 전통적으로 중시되어왔으나, 사회과학 분야는 정체성 및 독자적인 방법론이 정립되지 않은 관계로 아직까지 주변부에 머무르고 있다.⁸⁰⁾

사실상 중국을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있어서 인문과학 중심의 ‘중국학’과 사회과학 중심의 ‘중국연구’ 양자간의 우열을 따진다는 것은 필요 없는 논쟁이다. 중국연구는 전통, 현대와 당대를 일관성 있게 통시적(通時的)인 연구를 진행해야 하고, 인문과학과 사회과학간의 학문적 구분은 있지만 학제적 연구를 통해 중국문제를 보는 시각과 방법론상에서 상호보완적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76) 전성홍, “한국의 중국연구: 현황과 과제”, p. 22-23.

77) 원계연, “사회학적 중국연구방법의 모색”, 『社會科學論集』, 제 36집, 2005년.

78) 김근, “중국학, 무엇을 위한 학문인가?”, 『中國語文學誌』, 제7집, 2000년, p. 16.

79) 한국 내 중국관련 ‘연구소’는 사회과학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지역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학회’는 인문과학 중심의 중국학 전공자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전성홍, “한국의 중국연구: 현황과 과제”, p. 16, 27.

80) 김근, “중국학, 무엇을 위한 학문인가?”, p. 16.

V. 결 론

한국의 중국연구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다 방면에 걸쳐 양적인 증가를 이루었다. 초기의 한학 및 베이핑학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중국학 단계를 거쳐 현재 지역연구적 중국연구 단계에 이르렀다. 역사적 변천 속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과 중국연구자들의 기능도 함께 변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중국연구는 미국, 대만 및 일본 등 몇몇 국가의 연구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한국적 시각의 연구방법을 형성하지 못한 나머지 질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현재 한국의 중국연구는 정체성과 방법론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분에 대한 혼란에 빠져있다. 주로 한국적 시각의 연구, 내재적 시각 연구, 학제간 연구 및 공동연구, 지역연구와 분과학문간의 관계 및 인문과학과 사회과학간의 교류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연구자들은 서로 상반되는 견해를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상대방의 단점만을 지적 하는 경향도 때때로 보인다. 또한 유학 출신 국가 및 지역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 역시도 상호보완적 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질적인 형태를 띠고 발전하고 있다.

현재 중국연구에서 한 측의 장점은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그럼으로 중국연구자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신의 단점을 깊이 성찰하고 상대방의 우수한 방법을 수용하여,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가는 성실한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필자는 한국에서 중국연구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고, 당장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공허한 구호만 외치려는 것은 아니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당면한 문제점들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고민을 통해, 향후 한국의 중국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밑거름을 찾으려 한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근, “중국학, 무엇을 위한 학문인가?”, 『中國語文學誌』, 제 7집, 2000년.
김도희, “한국의 중국연구: 시각과 쟁점”, 『東亞研究』, 2006년 2월.
김영진, “중국정치 연구의 정체성에 관한 시론”, 『국제지역연구』, 2003년 1월.
문홍호, “한국에서의 중국연구동향: 『中蘇研究』에 발표된 중국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中蘇研究』, 통권50호, 1991년 여름.
박병석, “미국의 중국연구 추세와 접근법: 한국의 문제점을 아울러 논함”, 『東北亞發展研究』, 인천: 인천대학교 동북아발전연구원, 1999년.
백권호 이문형 이태환 전성홍, 『중국정치 경제에 관한 국내 연구의 현황과 과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년 12월.
원재연, “사회학적 중구연구방법의 모색”, 『社會科學論集』, 제 36집, 2005년
이병화, 『지역연구, 배낭 메고』, 부산: 세종출판사, 2003년.
이상섭·권태환 편,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년.

- 이희옥, “한국에서 중국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역사비평』, 통권61호, 2002년 11월.
- 전략희, “한국에서 중국학 연구의 어제와 과제”, <http://cafe.naver.com/chinainstitute.cafe>
- 전성홍, “한국의 지역연구 과제: 필요성, 정체성, 방향성 인식의 혼란 극복을 위하여”, 『국가전략』, 제 8권 2호, 2002년.
- 전성홍, “한국의 중국 연구 발전 전망과 『중소연구』의 역할”, 『中蘇研究』, 통권100호, 2004년 2월.
- 정우광, “韓國에서 中國學의 現況과 그 方向”, 『中國語文論叢』, 제21집, 2001년.
- 정재호 편, 『중국정치연구론: 영역, 쟁점, 방법 및 교류』, 서울: 나남, 2000년.
- 정재호외 5명, “한국에서의 중국정치 연구의 재 고찰: 자료, 방법론 및 담론을 중심으로”, 『國際政治論叢』, 제45집, 2005년.
- 조기숙, “한국에서의 지역연구: 정체성과 방법론”, 『세계지역연구논총』, 제12집, 1998년.
- 최성 편, 『현대사회주의 비교연구』, 서울: 학민사, 1990년.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역학연구회, 『지역학 연구의 과제와 방법』, 서울: 책갈피, 2000년.
- 何培忠편, 『當代國外中國學研究』, 베이징: 商務印書館, 2006년.
- 石之瑜편, 『從臨摹到反思』, 타이베이: 翰蘆圖書 출판사, 2005년.
- 楊煦生, “漢學: 回溯與前瞻”, 『瞭望』, 13期, 2007년 3월 26일.

Abstract

Past and Present Situation of China Studies in Korea

-Agony and reflection of a researcher of China-

Lim Kyoo Seob*

China studies have been carried on for a long time in Korea, though interrupted now and then. And the researcher's understanding of China and their role have also developed through important historical stages. However, China studies in the true meaning of area studies are not considered to be long enough, and Korea has not yet developed China studies from its own point of view. This is mainly because China studies in Korea have not seen due progress in quality, despite the growth in quantity.

China studies should be done by a foreigner from his own standpoint. As a branch of area studies, China studies should be based on 'their own position'. Then what do you mean by China studies what is based on Korean style and how should they be carried on? And what kind of role and function should they play? The researcher always raises such questions and is often confused about their social position and identity. This thesis research the standpoint of the researcher and the structural background of China studies such as history and system and the basis of China studies that have to be solve some arguments, aimed at seeking the way of the future china studies which based on Korean style.

■ 논문접수일 : 2007년 10월 18일, 논문심사일 : 2007년 11월 19일, 게재확정일 : 2007년 11월 22일

* Exchange Professor, Peking University(China)